

2026 October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seojh@hanafn.com

연구위원 이유정
yjlee.r@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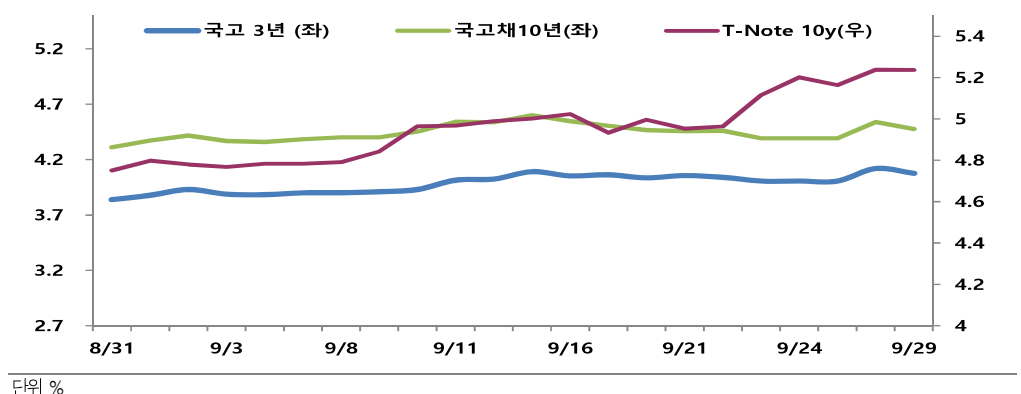
9월 동향

전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의 워시 의장 매파적 기조 및 중동 국지적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 흐름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압력 강화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나, 대내적 외국인 긍정적 수급 요인이 상단 제한한 국면 시현

- 월 초, 잭슨홀 미팅의 매파 영향과 국제유가 상승 국면 속 금리 상승 출발. 미 민간 고용지표 부진으로 국내외 금리가 하락 전환했지만, 예상외 비농업고용지표의 호조 및 호르무즈 확전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재차 급등세 시현 후, 미 재무부 국채 바이백 정책에 대한 시장 실망감과 재정 부실 우려 등이 추가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급등세 나타낸 국면
 - 월 초, 8월 잭슨홀 미팅에서의 워시 의장의 매파적 언급 속 미-이란 긴장 재격화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국내외 금리 상승에 영향. 이어 미 민간 ADP 보고서의 부진한 고용 여건 속 유가 반락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소폭 하락세 시현
 - 하지만 중동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속 8월 미 비농업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낸 측면 등이 국내외 금리 급등세 전환에 영향. 여기에 미 국채 바이백 정책에 대한 시장 실망감과 재정 우려 확대 등도 국내외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중반, 국내 외국인 투자자의 긍정적 수급 등으로 보험권에 있던 국고채 금리는 대외 주요국 국채금리의 급등세에 연동한 양상 시현 후, 연준과 BOJ의 전격적 25BP 금리 인상 단행에도 일부 선반영 영향과 이후의 국제유가 하락 및 외국인 수급 우위 등으로 하락 추세 전환 시현
 - 중반, 사우디원유 피격 소식 등에 의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크게 팽배했으나, 외국인 매수세 등 긍정적 수급 요인 우위 속 국고채 금리 보험권 출발 했으나,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 영향에 연동되며 국고채 금리도 상승 전환한 국면
 - 이어 미 10년 국채금리의 5% 상승 소식 속 연준과 BOJ의 전격 25BP 인상 등이 상승세 유지시켰으나, 그간 시장에서의 선반영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구간별 혼조세 시현. 이후 국제유가 하락과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강화 등의 수급 요인 반영하며 하락 전환 보임
- 후반, 중동 지엽적 분쟁이 이어졌지만 원유 공급 회복 기대 등에 따라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미 국채 금리 급등세 지속으로 국고채 금리도 상승 흐름 보였지만, 추석 연휴 이후 이어진 유가 하락세 및 외국인 수급 우위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
 - 후반, 중동에서의 후티와 사우디간 국지적 분쟁 확산이 이어졌지만 원유공급 회복 기대 등으로 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냄. 하지만 미 국채금리의 상승 추세 지속에 국고채 금리도 동조화 흐름 이어진 국면
 - 이어, 추석 연휴 이어진 유가 하락 추세 및 국고채 시장의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강화 등 긍정적 수급적 요인 영향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 전환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8월 평균
국고채(3년): 3.99%
T-Note(10년): 4.98%



10월 전망

한미 중앙은행의 연속 금리인상 단행보다는 정책 효과 점검 전망에 따른 영향 등이 금리 상단을 제한할 가운데, 연말께 추가 인상 예상되는 점과 중동 국지전 등에 따른 유가 영향 등은 하단 제한하며 다소 보험권 흐름이 예상

평균	1Q26	2Q26	3Q26	4Q26
국고채(3Y, %)	3.19	3.62	3.87	4.2 ^(f)

- 연준의 9월 전격 금리인상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했었지만, 최근 9월 PCE 물가가 다소 낮아진 결과를 보임에 따라 10월 FOMC는 지표 점검 관점에서의 접근이 예상. 이는 국내외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11월 중간 선거 이후, 12월 FOMC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은 재차 연말께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연준이 9월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물가, 고용, 성장성 등을 고려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겨 놓았지만, 최근 9월 PCE 물가가 완화에 따라 연속 인상보다 지표 확인 과정을 거치며 다소 속도조절할 가능성 등은 국내외 금리 상단 제한 요인으로 판단

· 다만,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12월중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연말 전후 금리 상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임

- 최근 미 장기금리의 5% 상회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요인인 중동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지적 분쟁 격화 등으로 국제유가의 상방 압력이 높아지는 형국. 특히 미-이란 갈등 격화가 미 11월 중간선거 전후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약화하는 측면 등은 기대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내외 금리 상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

· 최근 미국 장기금리의 상방 압력 요인인 중동 갈등이 완화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후티반군과 사우디간 국지적 분쟁 격화로 이어지며 유가의 상방 압력이 높아지는 형국

· 특히, 미-이란 갈등 격화가 미국 11월 중간 선거 전후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약화하는 점 등이 기대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내외 금리 상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은은 지난 7, 8월 금리인상 단행 이후, 내수 성장기반 상황과 금융안정 등을 고려 속도 조절 가능성 시사. 하지만 12월 연준 추가 금리인상 전망 속에 이에 따른 내외금리차 역전 폭 확대 등을 고려, 재차 연준에 선제적으로 11월 중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임. 이는 10월 금리 보험권 흐름 이후, 연말 전후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다소 높일 요인으로 판단

· 한은은 7월과 8월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 국내 내수 기반 상황과 금융안정 등으로 고려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 이에 따라 10월 회의는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측면에서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판단

· 하지만 연준 추가 인상 가능성에 따른 내외금리 역전 폭 확대 등을 고려 재차 연준에 선제적으로 11월 중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10월 중 국고채 금리 보험권 흐름 예상 속 연말 전후로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다소 높일 것으로 예상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10월 전망
4.0%~4.5%

상승요인	하락요인
· 연준의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에 따른 연말 전후 상방 압력 · 중동 국지적 분쟁 격화 및 미-이란 갈등 개선 기대 약화	· 단기 미 물가지표 하락 영향 · 한은의 연속 인상 이후 속도 조절 가능성

달러/원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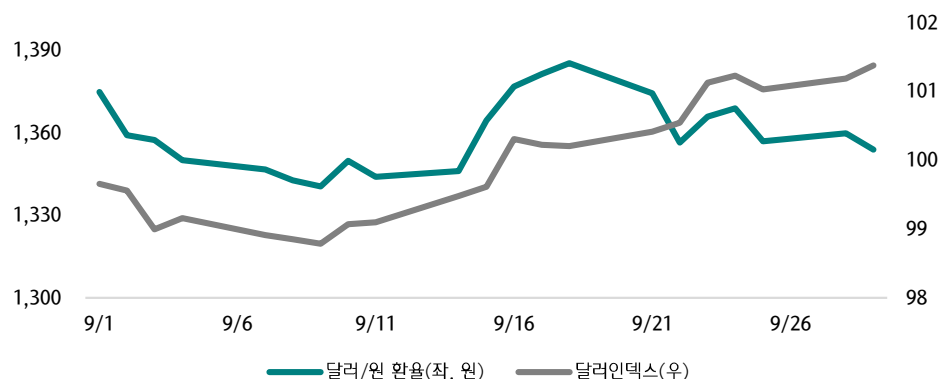
9 월 동향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매도 우위의 수급 여건에 힘입어 환율은 1,330원대까지 저점을 낮췄으나, 9월 FOMC 금리인상과 중동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및 달러인덱스 동반 상승 영향으로 반등

- 월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과 미 비농업 고용 호조,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등 글로벌 강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 속 매도 우위 수급과 엔화 강세 영향으로 하방 압력이 확대되며 1,330원대까지 하락
 - 월초,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부각된 연준의 매파적 정책 기조와 미-이란 간 군사적 충돌 격화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세가 글로벌 달러 강세를 자극했으나,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달러 공급 기대감과 역외 매도세 등 우호적 수급 여건 반영되며 1,350원대로 하락
 - 이후 미 비농업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BOJ 금리인상 가능성 및 일본 정책당국 경계감 등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며 글로벌 강달러 흐름이 주춤해지자 1,330원대까지 하락. 다만, 국민연금 환헤지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자 저점 인식 속 추가 하락은 제한
- 월 중반, 예상을 웃돈 미 물가지표와 국제유가 100달러 재상회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매파적 FOMC 결과가 겹치며 달러 강세폭 확대, 이에 환율 상승세 이어졌으나 엔화 개입 경계감에 강달러 흐름이 다소 완화되자 1,380원대에서 등락
 - 중반 들어, 9월 FOMC를 앞두고 미국 PPI와 CPI가 연달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데다,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마저 100달러선을 다시 상회하면서 연준의 긴축 우려가 확산됨.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와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 속에 원화 약세 흐름이 강화됨
 - 연준이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한 워시 의장의 발언이 부각됨. 여기에 환율 추가 상승을 경계한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환율은 1,390원선까지 상단을 높였으나, 일본 당국의 레이트체크 소식에 따른 엔화 강세 여파로 상단 제한
 - 9월 FOMC 금리인상 결정과 워시 의장의 추가 긴축 가능성 시사 발언 등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부각된 가운데, 환율 추가 상승을 우려한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되자 1,390원선까지 상승. 그러나 일본 당국의 레이트체크 소식에 따른 엔화 강세 여파로 상단 제한
- 후반, 대외 불확실성에도 매도 우위 수급 여건에 힘입어 원화 강세 흐름 나타났으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연준의 추가 긴축 경계감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세 및 달러 강세 영향에 반등 후 연준 연속 긴축 우려 제한되자 1,350원대 마감
 - 후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수급상 추석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 매도물량 및 역외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환율은 큰 폭 하락.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 내 연준 추가 긴축 우려가 확산되며 달러인덱스가 101선도 돌파하자 이를 따라 반등
 - 미-이란 협상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며 미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가 동반 상승, 이에 환율 상방 압력 받았으나 뉴욕 연은 총재의 긴축 속도조절 시사 및 미 PCE물가 둔화 소식에 강달러 제한되며 1,350원대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9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59.7
9월말 달러/원 환율
: 1,355.7



10 월 전망

연준의 추가 긴축 경계감과 미 국채 금리 상승세 등은 글로벌 달러 강세를 자극할 요인이거나, 건조한 국내 경기 모멘텀 등 원화 강세 여건이 환율의 상승 속도 및 폭을 조절해 줄 것으로 예상

평균	1Q26	2Q26	3Q26	4Q26
달러/원 환율(원)	1,467	1,501	1,418	1,365 ^(F)

- 연준의 추가 긴축 경계감과 미 국채 금리 상승세로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이어가겠으나, 대내외 여건상 연속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추가 상승 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
 - 올해 미 근원 PCE물가 3% 국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도 반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지속. 여기에 건조한 미 소비지출과 성장세 또한 미 장기금리 상승세를 자극하고 있어 글로벌 강달러 흐름 당분간 이어질 전망
 - 다만, 이전 에너지 가격 하락 시차 영향에 따른 미 물가 오름폭 둔화와 중동 원유 수송량 회복세, 다가오는 미 정치적 이벤트 등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연준의 공격적인 연속 긴축 가능성은 낮아 보여 달러의 강세 압력도 일정 부분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 주요국 긴축 사이클 속 미국 경제의 상대적 호조와 연준의 매파적 기조로 강달러 예상되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리스크 관리 행보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유입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단기적 완화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
 -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긴축에 나선 가운데, 유로존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건조한 측면이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 매파적 전망에 상대적으로 힘을 싣고 있음. 이는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한편, 미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 다지기 위해 미-이란 협상 시도나 연준 인하 압박 등 리스크 관리 나설 수 있으며, 이 경우 글로벌 위험회피 분위기가 잠시 누그러지며 원화 강세 나타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역대 최대 수출 실적과 건조한 성장세 등 우호적인 펀더멘털은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겠으나,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로 인해 양국 간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상대적 원화 강세 압력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9월 수출액 1,200억 달러 돌파하는 등 달러 공급 우위의 수급 여건이 기대됨. 여기에 선진국 대비 우위의 3%대 성장 전망 등 강건한 경기 모멘텀이 대외 리스크로 인한 환율 상단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버팀목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연준 금리인상으로 내외 금리차가 다시 100bp로 확대된 가운데, 한은은 교환율 부담 완화와 백투백 인상 여파 점검 등으로 이달 회의에서 동결 가능성 높아 보임. 따라서 앞선 한은의 선제적 긴축에 따른 원화 강세 영향은 이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10월 달러/원 환율
1,345~1,370원 예상

상승요인	하락요인
· 연준의 추가 긴축 경계감과 미 국채금리 상승세 등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 · 주요국 대비 건조한 미국 경제	·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세 속 우호적 수급 여건 지속 기대와 경제 펀더멘털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 관리 행보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유입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화 전망

BOJ의 매파적 정책 기조와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추가 긴축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일 금리차 지속 우려 등 구조적 약세 요인으로 인해 엔화 약세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

9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6.4
9월 엔/원 평균환율
: 869.2

■ **(엔화 동향)** 연준 주요 인사의 완화적 메시지에 긴축 경계감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BOJ 위원들의 추가 금리인상 지지 발언에 힘입어 엔화는 152엔대까지 급락. 그러나 중반, 예상을 웃돈 미 CPI와 중등발 유가 상승세, 이어진 연준의 금리인상 여파로 BOJ 긴축 효과 제한되며 엔화는 다시 약세로 전환. 후반, 미 국채금리 상승세와 강달러 영향 속 재차 160엔선에 근접했으나, 일본 정책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 등 시장 안정 의지 부각되자 약세 폭을 일부 되돌리며 157엔대로 마감

10월 엔/원 예상범위
: 850~865원

■ **(엔화 전망)** 9월 금정위에서 금리인상 단행했으나, 향후 추가 긴축 시점의 불확실성 및 일본 정부의 견제 가능성 부각됨. 또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로 인한 미 국채 금리 상승세와 그에 따른 미-일 금리차 지속 우려에 엔화 약세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편, 일본 정책당국의 엔저 대응 의지로 상단은 일정 수준 제한될 수 있겠으나, 구조적 약세 압력으로 인해 추세 전환 쉽지 않을 전망. BOJ 위원들이 금리인상 기조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연속 긴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장의 평가 속에 엔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한편, 엔화 약세가 재개되는 양상 속에서 일본 정책당국이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 금리차 지속 우려 등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약세 흐름 이어지며 157~159엔대에서 움직일 전망

유로화 전망

유로존 물가 상승 추세에도 경제적 부담 고려해 ECB는 추가 긴축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 또한, 대외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 이슈도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유로화는 약세 흐름 나타날 전망

9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506
9월 유로/원 평균환율
: 1,564.3

■ **(유로화 동향)** 유로존 8월 CPI 3.3% 기록과 예상을 웃돈 2분기 성장률 등 ECB 추가 긴축 가능성 부각된 반면, 연준 위원들은 금리동결 지지 발언 내놓자 유로화는 강세 보이며 1.16달러대로 상승. 중반, ECB 금리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9월 FOMC 금리인상과 워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크게 약세 보이며 1.14달러대로 급락. 후반, 중등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유로존 경기 하방 리스크 부각된 가운데 ECB 인사들이 추가 긴축에 대한 신중한 입장 강조하자 1.13달러대로 하락 마감

10월 유로/원 예상범위
: 1,525~1,550원

■ **(유로화 전망)** 유로존의 물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방 압력과 금리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할 때, ECB가 추가 긴축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로화 약세 압력이 우세할 전망. 또한, 미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EU 비축 경유 방출 압박 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도 유로화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유로존 9월 CPI 전년대비 3.7% 예상 등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지속되고 있으나, ECB는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선제적 인상 영향 등 점검하며 긴축 속도 조절 나설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판단. 또한, 미-이란 간 대치 국면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미 행정부가 프랑스, 독일에 대한 비축유 추가 방출 요구도 에너지 수급 불안 키우며 유로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 이에 1.12~1.14달러 흐름 보일 전망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6년 10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휴일] 중국(국경일), 홍콩(국경일) 한 9월 수출·입(YoY +68.7%, +22.5%), 무역수지 S&P 글로벌 제조업 PMI(52.3) 미 9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57.0) ISM 가공,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Challenger 해고자 지수(YoY -38.5%) 유 8월 실업률(6.4%) 9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일 9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휴일] 중국(국경일) AI/AR 필터크 호평 2026 [자동차] 미국 판매 데이터 발표 한 9월 CPI(MoM +0.2%, YoY +3.1%) CPI 근원(YoY +3.4%) 미 9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162K) 민간 부문 고용자수 변동(127K)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4.1%) 유 9월 CPI(P), CPI 근원(P) 일 8월 실업률(6.4%) 9월 도쿄 CPI(YoY +1.9%)	
4	5 한국 유장(대체 휴일) [휴일] 한국(대체 휴일), 중국(국경일) 뉴욕시의회, 시 규제 특별 청문회 : 사안전 규제 및 관련 입법안 심의 예정. 오존치, 덴트로직, 구글, 애플 등 실적 요청 EPICA 연례회의(~8) 미 9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유 9월 PPP(MoM -1.6%, YoY +5.8%) 9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일 9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 PMI(F) 소비자지수(35.5)	6 [휴일] 중국(국경일) [재진] 미국 3년을 국제 입찰 한국거래소, 코스닥 데이(-7) : 코리아 프라미엄 워크 일한, 대규모 R 행사 진행 아마존 프라임 데이(-7) 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KADEX 2026)(-10) 스마트라이프파크(S.W 2026) 6. 시 테스트(-8) 미 8월 수출·입(MoM -2.1%, +2.8%), 무역수지 유 8월 소비자물가(MoM -0.6%, YoY +0.6%)	7 지준일 [휴일] 중국(국경일) 9월 FOMC 의사록 공개 [재진] 미국 10년을 국제 입찰 뉴욕주 5차 발사 예정일 World Summit AI 2026(-8) 바이오 제팬 2026(-9) 미 8월 소비자신용지수 9월 뉴욕 연준 1년 기대인플레이션(3.58%)	8 음선만기일, 삼성전자 잠경 실적 한국 음선만기일 삼성전자 잠경 실적 발표 : 3분기 매출액 208조원, 영업이익 119조원 전망. 삼성전자 잠경 실적 시작으로 어닝 시즌 본격화 EU-중국 관광금 통상 회담(-9) [재진] 미국 30년을 국제 입찰 일 9월 경기관찰조사 연행(46.4)	9 한국 유장(만급날) [휴일] 한국(만급날) EU 경제 재무장관회의 : EU 회원국들의 경제 정책 조율과 금융 현안 논의. 유럽 자본시장 동향에 따라, 프로그래밍 과세 등 내용 2026 일본 국제 탄소세할용 컨퍼런스 2026 호주 열배론 박스 게임 박람회(-11) 미 10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10
11	12 [휴일] 일본(체육의 날) [기업] 크리에이츠, 인텔리팩스 수요예측(-16) BMP-제거선명(M) 연차총회(-18) : 새장정리명(M) 발표 예정, 7월 전망에서 세계 성장률 2.6년 3.0%, 27년 3.4% 전망 2026 OCP 글로벌 서밋(-15) 북미 벡터리츠 2026(-15) 월드 40C (비대회)(-15) 아르카 카 국제전략 및 에너지 워크(-14) 한 10월 1-10월 수출·입(YoY +82.6%, +20.7%)	13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미국 세미콘 웨스트 2026(-15) [기업] 해운업, 영향 수요예측(-19) 제5회 한국전직업(KES 2026)(-16) 카카오, 아프리카카로(f kakao) 26(-14) 미 9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98.7) 기존주택매매(MoM -2.0%) 일 9월 PMI(MoM -0.2%, YoY +7.6%)	14 Beige Book, 미 CPI 연준 베이치북 공개 F&A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제28회 연도제 대한(SDEX 2026)(-16) 미 9월 CPI(MoM -0.4%, YoY +3.4%) CPI 근원(MoM +0.3%, YoY +2.4%) 중 9월 CPI(YoY +0.8%), PPI (YoY +3.8%) 무역수지, 수출·입(YoY +25.0%),	15 EU 정상회담(-16) G20 재무장관-총리총회 총재 회의 [기업] 에이밀로트 수요예측(-21) [기업] 핀코스미 코스닥 상장 한 8월 통화금융 MD(MoM +0.3%) 미 9월 소매판매(MoM +1.2%) 근원 소매판매(MoM +1.4%) PMI(MoM -0.4%, YoY +5.4%) PMI 근원(MoM -0.2%, YoY +4.6%) 10월 빌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유 8월 산업생산(MoM -0.1%, YoY +0.0%)	16 미국 음선만기일 [기업] 엘비다 수요예측(-22) 한 9월 수출물가(MoM -2.4%, YoY +15.6%) 수출물가(MoM -3.7%, YoY +42.4%) 실업률(2.7%) 미 9월 수입물가(MoM +0.7%, YoY +7.0%) 수출물가(MoM -0.6%, YoY +8.6%) 중앙은행장, 실업가득들 10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 유 9월 CPI(P), CPI 근원(P)	17
18	19 [휴일] 휴무(중양일) APEC 재무장관회의(-21) :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제 금융정책 방향성 확인 세계경제(M) 글로벌 세 요 디지털 서밋(-22) 가본나 IT 심포지움(-22) LME 금속 세미나 미 10월 NAB를 주택시장(32.0) 중 9월 기존 주택가치(MoM -0.3%), 광공업생산 신규주택가치, 실업률(5.3%) 소비자물가(YoY +0.4%)	20 연비다에서 GTC 베틀런(-22) : 21일 원순환 CEO 기조연설 예정 세계 원자력 공급망 컨퍼런스(-21) 미 9월 주택매매(M) 건축가(P) 미갈 주택매매(MoM +0.3%) 10월 빌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유 8월 건설 생산(MoM -0.0%) 10월 ZEW 경기 전망지수(25.8)	21 [재진] 미국 20년을 국제 입찰 [화장품] 한국관광 데이터랩 외국인 인바운드 통계 2026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24) 2026 세계 코발티티 산업 전시회(-23) 산업 AI EXPO 2026(-23) 한 9월 PMI(YoY +7.9%) 10월 1-20월 수출·입(YoY +78.3%, +26.7%) 일 9월 수출·입(YoY +19.3%, +28.0%), 무역수지	22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0%로 2연속 인상 [기업] 이코플 수요예측(-28) 2026 오존치 DenDey Exchange 서울 미 9월 선행지수 10월 연식스피드 제조업활동	23 유럽 ESMO 2026(-27) 유럽 ESMO 2026(-27) : 글로벌 기술이전(L.O) 및 신약 가치 평가 주목 미 10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연식스피드 연준 서비스업 활동 유 10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24
25	26 중국 20기 5중전회(-29) 중국 20기 5중전회(-29) : 당의 건설과 인민 교육, 5개년 경제개발계획 등 논의. 시간지 국가주제 4연의 조율과 타지는 지리 IBM TechXchange 2026(-29) : IBM 연례 행사, 새 기술, 제품 등 발표 예정 [재진] 미국 2년을 국제 입찰 서울 판적크 워크(-28) 상하로 국제에너지워크(-30) 미 9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10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27 미 FOMC(-28) 미국 FOMC(-28)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75%-4.0%로 25bp 인상 [재진] 미국 5년을 국제 입찰 한 10월 소비자신뢰지수 3Q GDP(F&A) QoQ +0.6%, YoY +3.7%) 미 8월 FHFA 주택가치지수 S&P 코어동적 CS 20개 도시 9월 신규주택매매 10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연준 경기현황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지수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28 OECD 광물·지열발전 장관급 컨퍼런스(-30) OECD 광물·지열발전 장관급 컨퍼런스(-30) 바이오물러스-인터텍스 코리아 2026(-30)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 2026(-30) 금융산업대전 2026(-30)	29 ECB, BOJ 통화정책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5%로 25bp 인상 BOJ 금융정책위원회(-30) [기업] 연도제 대한(SDEX 2026)(-16) 미 9월 PCE, PCE 근원 개먼소득, 개먼소비지수 3Q GDP, GDP 물가지수, 개먼소비(A) 10월 MNE 시카고 PMI	30 30 C20 외교장관회의(-31) [자동차] SNE Research 전기자/2차전지 데이터 한 9월 광공업생산 유 9월 실업률 3Q GDP(F&A) QoQ +0.6%, YoY +1.2%) 일 9월 소매판매, 광공업생산(P), 주택착공건수, 실업률	31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